

일본 청소년, 가치관 붕괴가 가정의 붕괴를 이끈다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지난 1998년과 1999년 일본 덴쓰인간연구소가 도쿄, 서울, 베이징, 방콕,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도시들과 영, 독, 프, 미 등 서양 몇 나라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부, 가정, 진급, 여가, 인간관계 등 아홉가지 가치에 대한 동, 서양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흥미있는 차이점은 서양인들은 여가를 중시하는 반면 동양인은 가정을 가장 중시했다는 부분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일본을 보면 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 8월 3일 올해 상반기 형사범죄의 적발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14세에서 19세 사이 소년범들의 살인, 강도, 부녀자 폭행 등 흉악범죄가 현저히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인은 5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배, 조직폭력은 8,4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4%가 늘어 89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교내폭력도 478건에 762명으로 건수로는 34.3%, 사람수로는 29.6%의 증가세를 보였다.

심각성은 증가세에만 있지 않다. 바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소 성실하던 학생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전문가들이 원인과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일본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아이치현에서 17세 무직 소년이 40대 주부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경찰에서 "책과 TV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경험을 해 보고 싶었다"고 태연히 밝혀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지난 6월 21일에는 오카야마현 공립고등학교 3

학년생이 교내 체육관에서 후배 야구부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집에 귀가해서 어머니를 다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 학생은 보름 후 잡혔는데 평소 성실하고 성적도 우수, 가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기존 가치관과 사회제도가 붕괴되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 도피처를 찾는다는 것이 비뿔어진 방향으로 가는게 아닌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강력범죄 담당검사는 아울러 "자기 평가가 낮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를 저지른다"고 지적한다. 우리 나라도 이런 현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면 이미 94년에 존속살해 사건이 9일에 한 건씩,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 사건이 하루에 3.2건씩 일어 났다고 한다. 올해만 해도 한 대학생이 부모를 토막내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은 우리가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 자식이라고 인격체로서의 대접을 소홀히 하고 부모의 비행을 충족시켜 주길 바라는 기계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자식을 떠받든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자식에게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사랑과 정이 바탕이 된 가정, 이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가정이 아닐까?

머잖아 추석이다. 우리는 또다시 고향으로 향할 것이다.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달을 같이 보자고 하자. 어린 시절 꾸었던 꿈과 희망과 좌절을 말해 보자. 그리고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공통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